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브리프
BRIEF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5. 12 Vol 5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T. 055-713-7076 F. 055-713-7093 www.gnwff.or.kr

이인숙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경남 시군 가족센터 운영 현황과 과제[1)]

01. 전국 및 경남 가족센터 현황

02. 경남 시군 가족센터 연혁 및 운영현황

03. 경남 시군 가족센터 사업 추진현황

04. 가족센터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 급격한 가족형태 변화와 보편적 가족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2004년 보편적 가족정책의 출발로 상징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었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취약가족지원 중심의 선별적 가족정책의 전환을 통해 특정 문제를 가진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가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 한편, 2000년 초반부터 진행되어 온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다문화가족의 정착이 장기화되면서 학령기 자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대, 이혼·사별 증가 등 다문화가족 내 다양성 증대에 대응해야 할 시점임
- 상술한 바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양대 가족정책 법률 기반 마련을 통해 가족지원서비스 추진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운영되면서 보편적 가족지원서비스가 확대되었지만, 두 추진체계가 이원화되어 운영됨으로써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의 문제 등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함. 그 결과로 이원화된 가족서비스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로 2014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9개소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고, 점차 전국에 통합형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확대되었음
- 2021년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가족센터의 목적은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정의되어(여성가족부, 2025). 2025년 전국에 220개소가 설치·운영 중임
- 경상남도는 2014년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소인 하동군 1개소로 출발해, 진주시가 2022년에 가장 늦게 통합되었고, 2024년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통합하여 광역 가족센터 1개소와 시군 가족센터 19개소였고, 창원시진해가족센터가 2025년 5월 출범해 총 21개소임
- 가족센터가 다양한 가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1~'25)과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3~'27) 수립을 통해 가족 다양성과 보편성, 성평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 추진되어 옴.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센터의 기능도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실효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가족센터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 본고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 안내」자료와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에 탑재된 경남 시군 가족센터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분석하여, 시군 가족센터가 지역사회의 가족서비스 지원 허브기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1) 본고는 2025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한 「경남 가족센터 활성화 방안」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본고는 2024년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한 것으로 창원시진해가족센터(2025년 5월 개소)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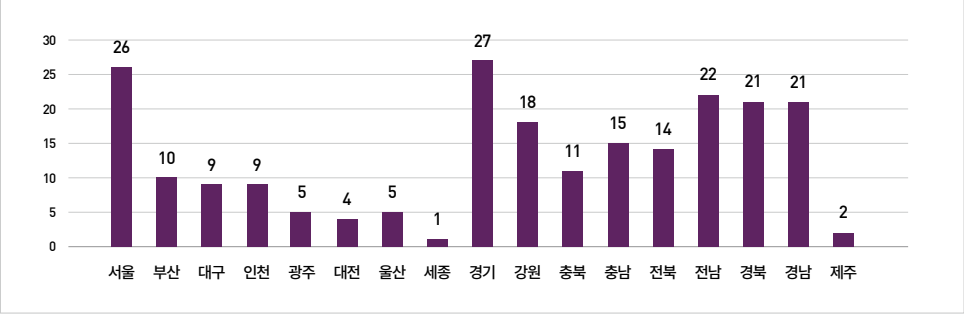
01. 전국 및 경상남도 가족센터 현황

전국 통합 가족센터 현황

- 2025년 현재 전국의 가족센터는 220개소로 경기도가 2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 26개소, 전남 22개소, 경남과 경북이 다섯 번째로 많은 21개소임
- 전국에 '통합 가족센터'가 아닌, 건강가정지원센터 12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개소가 남아 있어, 이를 포함하면 전국에 모두 246개소가 있음

그림 1 전국 가족센터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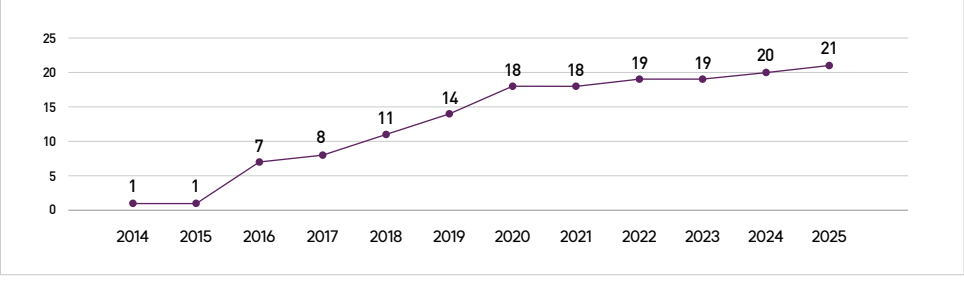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2025). 가족사업안내.

경남 통합 가족센터 현황

- 경남의 가족센터는 2014년 하동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처음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고, 2016년 7개소, 2020년 18개소, 2024년 20개소였음
- 2024년 광역 가족센터 1개소가 통합되어 20개소였고, 2025년 창원진해가족센터가 개소하여 21개소로 경남의 모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되었음

그림 2 경남 가족센터 현황

(단위: 개소, 년)



출처: 경남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25).
주: 본 자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된 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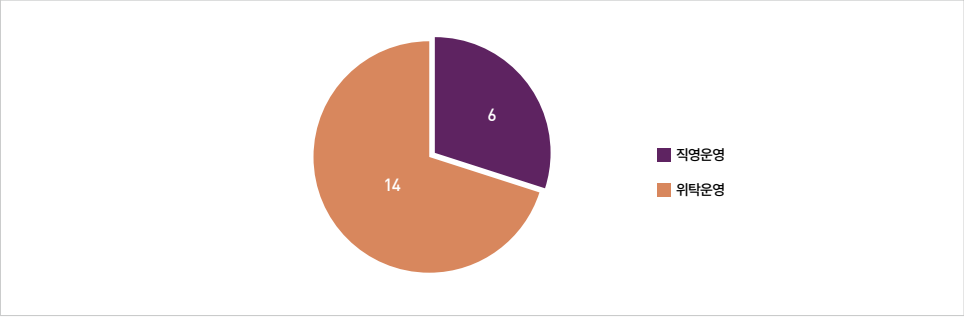
02. 시군 가족센터 연혁 및 운영현황

시·군 가족센터 연혁 및 운영 현황

- 시·군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으로 2004~2010년에 대부분 개소하였고, 김해시가 2004년 가장 먼저 개소하였음.
- 가족센터 운영형태는 지자체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되는데, 시군의 20개소 중 창원시, 진주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의 6개소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14개소는 법인·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됨
- 가족센터 규모에 따라 예산유형에 차이가 있는데, 가형 3개소, 나형 7개소, 라형 4개소, 마형 6개소임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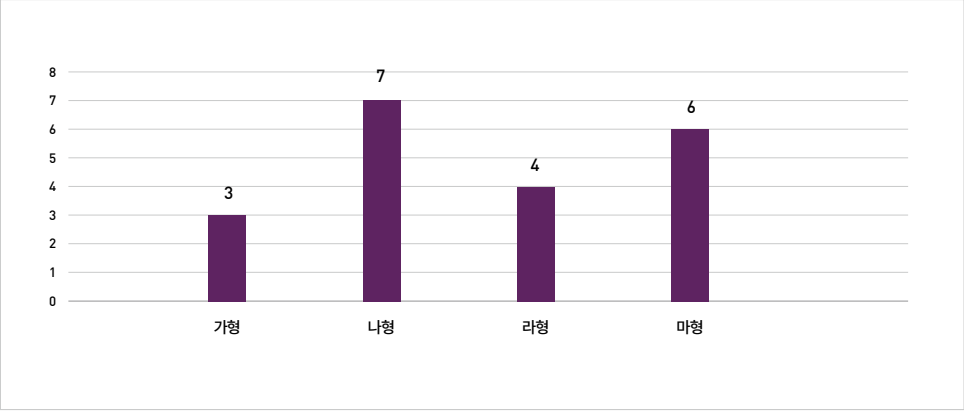
그림 3 시군 가족센터 운영형태



출처: 경남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25).

(단위: 개소)

그림 4 시군가족센터 예산운영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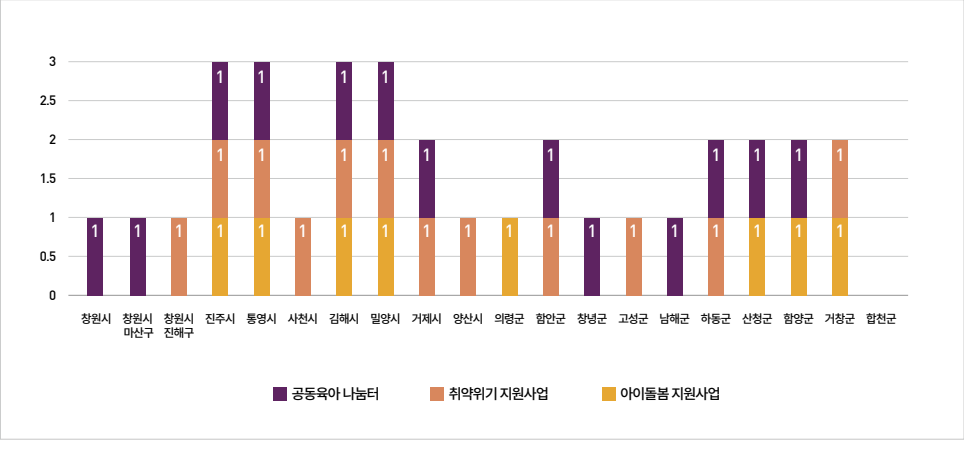
출처: 경남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25).
주: 경남에는 가족센터 다형은 없음.

시·군별 가족센터 별도 사업 운영 현황

■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별도사업 중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취약위기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3가지를 모두 운영 중인 센터는 4개소(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이며, 이 중 두 가지를 운영 중인 센터는 거제시, 함안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등 6개소임

(단위: 개)

그림 5 시군 가족센터 주요사업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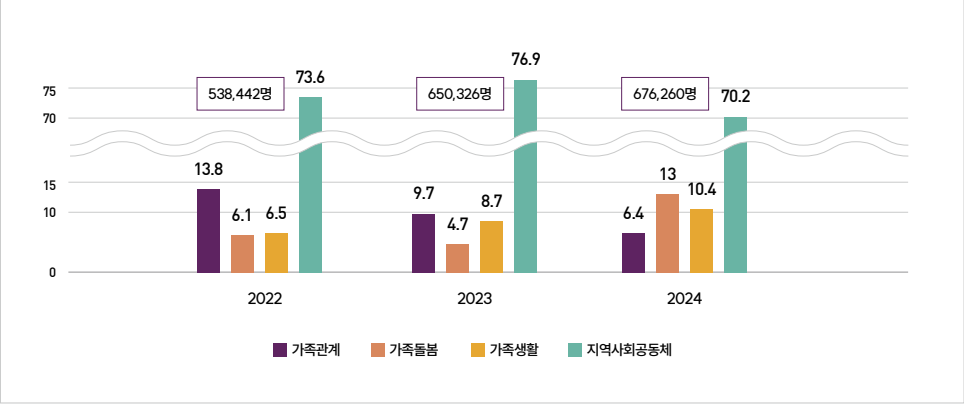
03. 시군 가족센터 사업추진 현황

가족센터 참여 인원 및 사업영역별 참여율

- 경남 시군 가족센터 19개소에서 4개 사업영역에 참여한 인원은 2022년 538,442명, 2023년 650,326명, 2024년 676,260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종료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사업영역별 참여자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모두 지역사회공동체 사업영역 참여자가 가장 많고, 연도별로는 지역사회공동체 영역과 가족관계 영역 참여자는 감소추세이고, 가족돌봄 영역과 가족생활 영역 참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그림 6 가족센터 사업 영역별 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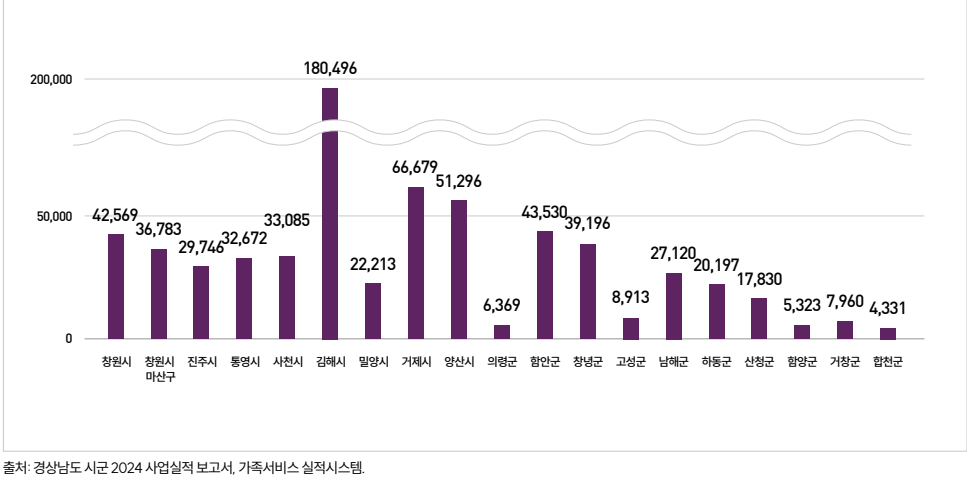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시군 가족센터 사업실적 보고서(2022, 2023, 2024)

시군 가족센터별 사업 참여자 수

- 시군 가족센터별 사업 참여자 수는 김해시가 180,49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거제시 66,676명, 양산시 51,296명, 함안군 43,530명, 창원시 42,569명, 창녕군이 39,196명의 순이고, 가장 이용자가 적은 지역은 합천군으로 4,331명임
- 가족센터 이용자 수는 함안군과 창녕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참여자 수가 많음

그림 7 시군 가족센터별 사업 참여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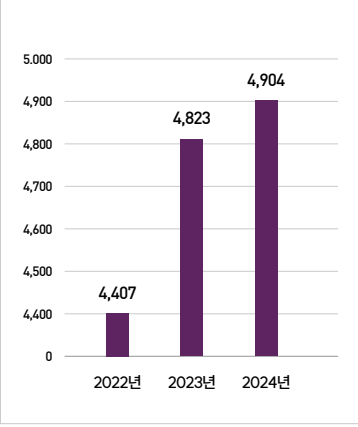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시군 2024 사업실적 보고서,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시·군 가족센터 프로그램 수 및 회기 수

- 시군 가족센터의 2022년 개설된 프로그램 수는 4,407건이고, 2023년은 4,823건, 2024년은 4,904건으로 증가추세임
- 각 사업의 총 회기수는 2022년 30,100회기, 2023년 32,094회기, 2024년 38,315회기로 증가추세임

그림 8 시군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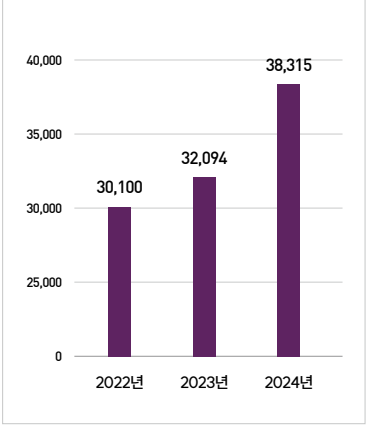
(단위: 건)



출처: 경상남도 시군 2024 사업실적 보고서,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그림 9 시군 가족센터 프로그램 회기 수

(단위: 회기)



출처: 경상남도 시군 2024 사업실적 보고서,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시·군 가족센터 성별 사업 참여자 현황

- 가족센터 참여자의 성별은 2022년 여성이 182,000명이고, 남성이 92,728명, 성별 구분이 안되는 참여자는 229,704명으로, 남녀만 비교하면 여성이 66.3%로 남성보다 2배임. 2023년과 2024년도 성별 비구분을 제외하고 여성참여자와 남성참여자 비율만 비교하면 여성참여자가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가족센터 사업 성별 참여자 수 및 여성비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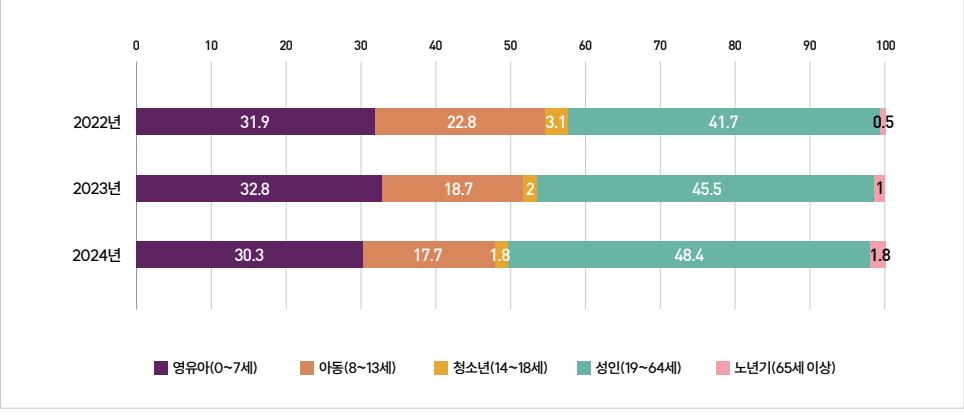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시군 2024 사업실적 보고서,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시·군 가족센터 사업 참여자 연령 분포

- 가족센터 사업에 참여한 연령별 참여자를 비교하면 성인(19~49세) 참여가 2022년 41.7%, 2023년 45.5%, 2024년 48.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영유아(0~7세), 아동(8~13세)의 순이며, 노년기(65세 이상) 참여자가 가장 적음
- 지난 3년간 성인 참여자는 증가한 반면, 아동(8~13세)과 청소년(14~18세) 참여자는 다소 감소 추세임

그림 11 가족센터 사업 참여자 연령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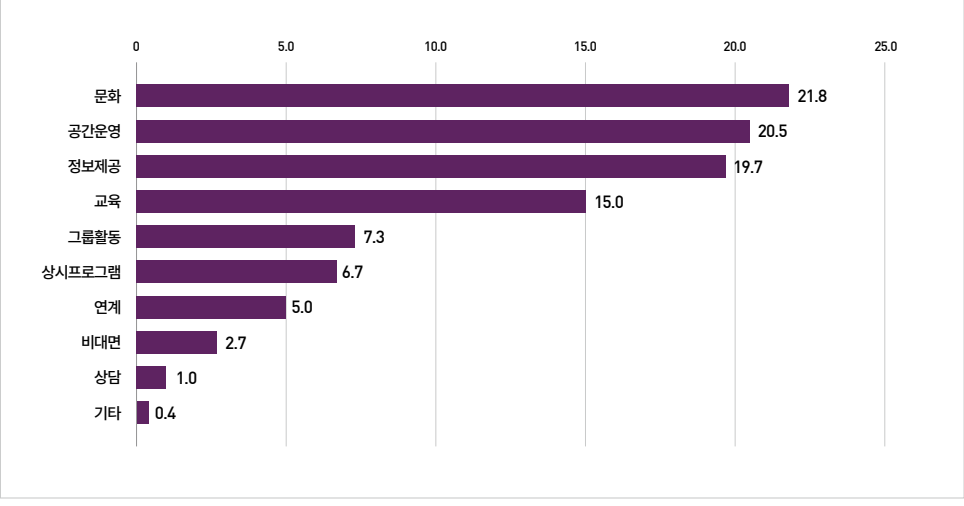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시군 2024 사업실적 보고서,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시·군 가족센터 사업 방법별 참여자 현황

- 가족센터는 교육, 문화프로그램, 상담, 연계, 정보제공, 공간운영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24년은 문화프로그램 참여자가 21.8%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공간운영 참여자 20.5%, 정보제공 19.7%의 순으로 나타남
- 그 외에 교육 참여자는 15.0%, 그룹활동 7.3%이고, 상담은 1.0%에 그침

그림 12 가족센터 사업 방법별 참여자 현황(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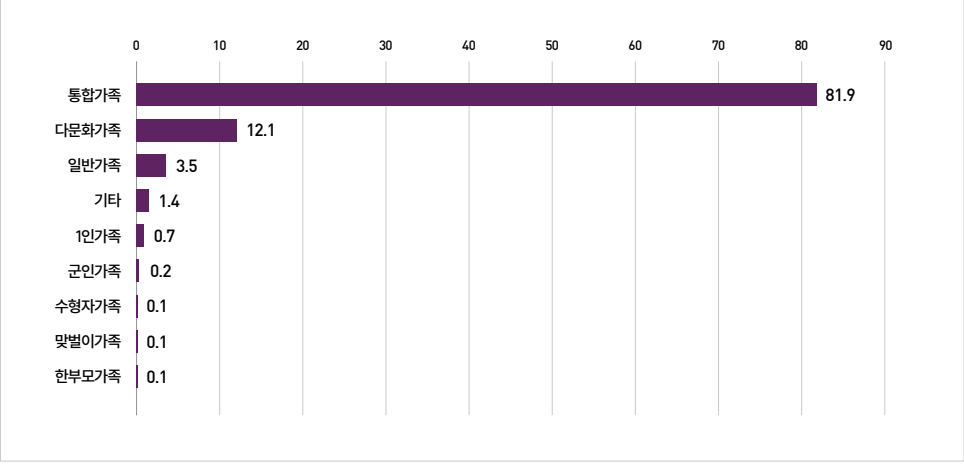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시군 2024 사업실적 보고서,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주: 기타에는 회의, 파견, 컨설팅 등이 포함됨

시·군 가족센터 사업 참여자 가족 유형

- 2024년 가족센터 사업에 참여한 가족유형은 2가지 이상의 가족특성을 지닌 통합가족이 81.9%로 가장 많았고, 단독 가족유형 중에서는 다문화가족이 12.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반가족 3.5%, 1인가족 0.7%, 군인가족 0.2%, 맞벌이가족, 수형자가족, 한부모가족이 각각 0.1%로 나타남
- 그 외 여성가족부의 가족서비스 권고 대상인 미혼부모가족, 조손가족, 입양가족 등의 참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가족센터 사업 참여자 가족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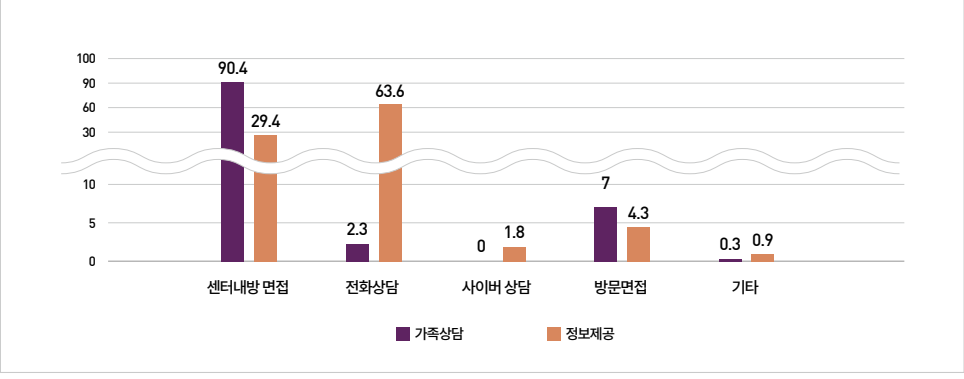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시군 2024 사업실적 보고서,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시·군 가족센터 상담 유형 현황

-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가족상담과 정보제공상담으로 구분되는데, 2024년 가족상담 방법은 주로 센터 내방 면접이 9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방문면접, 전화상담의 순임
- 정보제공상담은 2024년 기준 전화상담이 약 63.6%로 가장 많고, 센터내방면접을 통한 정보제공은 29.5%, 방문면접은 4.3%의 순임

그림 14 가족센터 상담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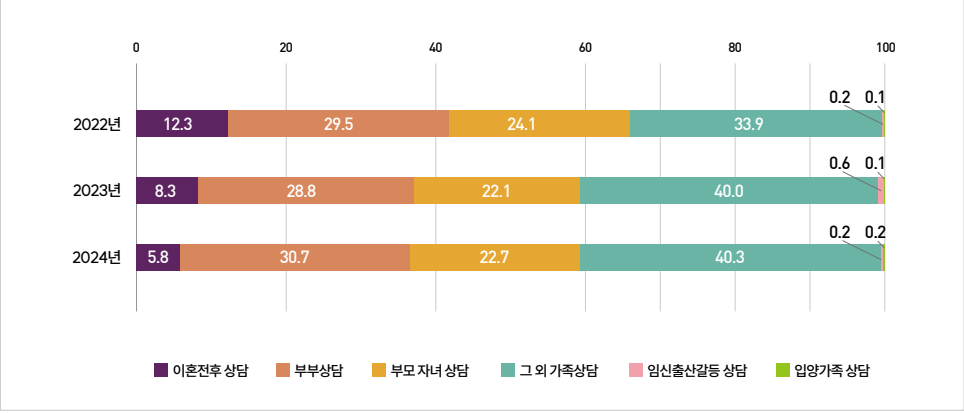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시군 2024 사업실적 보고서,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시·군 가족센터 상담 주요 내용

- 가족센터의 가족상담 주요 내용은 이혼전후 상담이 2022년 12.3%에서 2023년 8.3%. 2024년 5.8%로 감소 추세이고, 부부상담은 2022년 29.5%에서 2024년 30.7%로 보합세이며, 부모-자녀상담은 2022년 24.1%에서 2024년 22.7%로 약간 감소함
- 그 외 다양한 내용의 가족상담이 1,796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갈등상담, 입양가족상담 등이 소수 포함됨

그림 15 가족센터 상담 주요내용

(단위: %)



출처: 경상남도 시군 2024 사업실적 보고서,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04. 시군 가족센터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통합 가족센터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유기능 사업 강화

- 가족센터로 명칭이 통합된 이후 기관 및 사업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여전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인식되기도 하는 등 지역 내 센터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과 사업 내용이 매우 광범위해서 다른 복지기관들과 역할이 겹치기도 하는 등 중복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현재 가족센터의 주요 이용자층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지만 경남도 내 지역마다 중장년 및 노년 인구층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임. 가족관계증진 등 가족사업을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가족욕구를 보다 세밀하게 다룸으로써 다른 기관과의 서비스 차별화하고 가족센터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족 다양성 및 지역 특성 기반한 보편적 가족서비스 기능 확립

- 경남의 출생 및 혼인 감소가 인구감소로 지속되는 가운데, 노령인구의 증가와 1인가구, 맞벌이가구, 외국인 주민, 한부모가구 등 인구의 성격과 가족 유형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역의 다양한 인구 및 가족에 대응한 가족센터의 맞춤형 사업 확대가 필요함
- 가족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 군대주둔지, 귀농·귀촌인구 증가, 조선 및 우주항공 등 특정 산업 밀집 등 매우 다양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주민 또는 새롭게 이주하는 주민들의 증가를 고려하여 이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족센터가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 확대

- 가족센터는 개인의 성장과 가족관계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등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족센터 중요사업 중 하나임. 특히 가족상담에 대한 이용자 요구는 많으나, 실제 시군 가족센터의 경우 가족상담 전문인력을 확보의 어려움으로 상담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이혼전후 가족상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대상가구를 생애주기에 따라 세분화해서 이혼전후 가족상담을 구분·운영할 필요가 있음. 즉 중장년 및 노년의 황혼이혼, 결혼 후 4년 이내 부부의 신혼이혼 등은 다루어야 할 욕구체계가 현저히 달라 이들을 세분화해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